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한국교회의 영적전쟁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11절

Tag: 역사, 부흥과 한국교회 >History, revival & Korean church

7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8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앎이라

10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11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벧전5:7-11)

여러분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아 주십니다.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를 모르는체하지 않으시고 아주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돌봄을 받도록 지음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그 뜻이 땅에서 펼치도록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원을 사용하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창조적 영성으로 펼치도록 하셨다. 그래서 필요하면 천사를 동원하시고,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신다.

그래서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지음 받았다. 특히 성령으로 하나가 된다. 성령의 사람이 곧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의 저주를 당하신 것이다.

세상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나, 여전히 죄와 저주가 남아있고, 특히 현재 우리나라는 이념전쟁이 한창이며,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한다.

마귀가 삼키기 좋은 사람이 누구인가? 깨어 기도하지 않는 자이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간의 구별을 하지 못하고, 시대를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근신하는 것은, 조심하고 몸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분별력이 떨어진다.

특히 너무 양같은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양의 털을 쓴 이리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너무 먹기 좋으면 조심해야 한다. 사탄은 자신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선한 척을 한다.

악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노린다. 그래서 일부러 선한사람 코스프레를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과 악은 서로 싸우는 대상이지 평화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의 싸움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악 그 자체이다.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다. 그런데 정작 마귀는 양의 털을 쓰고 평화와 화해의 제스처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지혜롭게 싸워야 한다. 언뜻 보기에는 우리와 매우 친근한 존재 같지만, 그 속에 악한 의도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악한 의도는 매우 마귀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거짓말을 아주 잘한다. 거짓말을 아주 잘한다는 것은 파렴치하기도 하고 뻔뻔하기도 하고 그럴듯하기도 하고 억울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 모르는 척 했다가 때를 쓰기도 하고, 심지어는 신령한척하기도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렇게 마귀에게 속은 사람들은 상대방도 자기처럼 자신의 욕심을 이용해서 악한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스스로 다짐한다.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죽이고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다짐한다.

여기에 더해서 현재 우리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주사파는 자신들에게 남겨진 유일한 도구는 핵인질 전략이라고 굳게 믿고 있으며, 핵인질 전략 앞에 결국 미국도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과대망상인데도 죽기살기로 덤비겠다는 전략이다. 벼랑끝 전술, 배수진 전술이다.

그런데 문제는 남한이 핵인질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실을 깨닫고 저항하며 이 핵인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가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 외에는 없다.

현재 주사파들은 안타깝게도 벼랑 끝에 매달려 있다. 사실 가장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자들이 주사파들이다. 민주노총을 통해서 서로 잘 치고 박고 하면서 자신들의 생명을 연명하고 있다. 한국정치가 요새처럼 위기일로인 경우는 없었다. 현재 주사파들은 북한정권의 총부리가 뒷통수에 있다. 미국은 멀고 서울은 가깝다. 서울은 핵이 아니라 장사정포로도 쑥대밭이 된다. (40km 사거리, 수도권 궤멸. 전시작전권 반환, 미군기지 평택으로 이전. 결국 주사파정권만 가장 위험한 처지에 처하게 됨. 이들은 방송을 장악하고 거짓말을 이용하고 있으며, 조만간 유튜브를 장악하려고 할 것임.)

여기에서 한국교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문제는 3.1운동 때부터 독립운동가 들 가운데 이미 공산당 이념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었다는 점이다.(김구도 마찬가지) 이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지리멸렬했을 것이라 짐작했지만, 놀랍게도 현재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소수이면서도 불구하고 교계의 이념을 물들게 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유일한 소망이 된 한국교회는 이들부터 경계하며 이들의 정체를 밝히고 깨닫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가 되었다.

이번에 한기총을 반대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냈다. 그래서 이들의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그동안에는 아는 사람들이 적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정체가 드러났다.(뉴스엔조이, 기윤실(기독교윤리실천운동,손봉호) 성서한국(홍정길),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보수성향	중도성향	진보성향
<u>한국기독교총연합회</u>	<u>한국교회연</u> <u>한국교회총연합</u>	<u>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u>
(한기총)	<u>합</u> (한교연) <u>회</u> (한교총)	(NCCK)
	<u>한국기독교연합</u> (한기연)	대한성공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그렇다고 한기총이 그동안 잘해왔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기총은 그 좋은 이미지 때문에 온갖 자격미달자들이 대표회장 되고 싶어 달려들어 만신창이가 되었다. 온갖 추태를 다 저질렀다.

이제 거의 풍비박산이 되다시피 했는데, 결국에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목사에게 대표회장 자리가 돌아가게 되었다.

이분은 오래전부터 매우 강력한 보수주의 운동을 하던 분이시다. 청교도영성훈련을 통해서 교계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성령운동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보수적이고 반공산주의적이고, 반 주체사상적 운동을 전개해 왔다.

나는 15년 전부터 알게 되었고 집회에도 여러번 참여해 왔는데, 그때는 김대중대통령과 대적해서 설교하던 것 때문에 눈물 많이 흘렀었다.

그러나 그 후 나는 입장을 바꾸게 되었다. 설마 했던 주사파들이 온 사회 구석 구석에 침투해서 세상을 야금 야금 바꾸어가고 있는 사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나부터도 너무 오랜 세월이 걸렸다. 나는 극히 일부 종북주의자들의 행보로만 생각했고,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그들의 행동이 튀는 행동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절대 다수는 그저 뉴스거리로 듣지, 실제로 그런 일들이 확산되지는 않을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결국 세상은 주사파가 정권을 잡고 말았다. 이제 이들은 버젓이 자신들의 행위를 서슴치 않는다. 약간 여론에 불리하다 싶으면 곧바로 변명하고 거짓말하였다.

절대 다수는 이제 그 거짓말을 믿는 분위기가 되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북한이나 중국처럼 유튜브까지 막아놓고 공산당 독재로 가게 되는 것 아닌가 의심이 된다.

9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앎이라

정말 우리가 주사파에게 속고, 결국은 미국의 힘을 이용해서 주사파가 정권을 쥐게 되면 어떻게 될까? 김정은은 죽게 될 것이고, 남북한은 통일될 것이며, 한국은 중국의 속국처럼 되어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미국은 일본과 더욱 친밀해지며 한일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며, 통일한국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만연해질 것이다. 정치는 중국화 경제는 서구 동유럽화, 종교는 율법화, 교회는 유럽화가 진행되고 이슬람과 이단들이 활개를 치게 될 것이다.

부자들은 더 큰 부를 누리게 될 것이고, 대부분은 가난한 자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념전쟁에서 승리하고 미국을 비롯한 자유 우방 국가들에게 한국교회의 신념을 알게하고 그들이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한국을 포기하지 않게 되고, 결정적 순간에 한국을 돕게 된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영적전쟁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분당우리교회를 필두로 영적전쟁이 시작되었다. 한기총 전광훈 목사가 앞장서고 있다. 이번 전쟁은 한국교회의 영적전쟁이고, 한국교회 안에 숨어들어온 거짓말쟁이들을 대적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를 명심하고 승리해야 할 것이다.

10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11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고린도후서 12장 9절

성경: 약할 때 강함 되시네

Tag: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후12:9)

약한데서 온전하여지는 이유

무능력함과 약함의 차이

비하하는 태도와 겸손함(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차이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여금 나에게 머물게 하고자 함.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한 본능적 태도

-젓먹이가 엄마에게 의존하듯이

-최상의 상태는 세상이나 세속을 의존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를 의존하는 것.

-아버지는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도우신다.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스스로 돕는자? 오역.

help yourself 스스로 하세요.

-기독교는 결코 무능력자들의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이 찾는 의인 한사람.